

사설

‘종교환경회의’에 거는 기대

환경문제는 자연환경을 잘 보전해 쾌적한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신장시켜서 살아온 삶의 대전환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없으려는 하늘과 땅과 물과 허공이 안전할 수 없으며, 거기에 기대어 사는 인간과 생명의 목숨을 이어갈 수 없음을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22일 ‘종교환경회의’가 출범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의 종교인들이 종교의 가르침인 자발적인 가난과 청빈, 무소유의 실천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리는 환경문제의 해결이 삶의 대전환에 있듯, 이의 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한 주체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종교환경회의의 출범을 반기는 한편 왜 지금이야 뜻을 모았는지 뒤늦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생산해서 많이 소비하는 것과 많이 소유하는 것을 발전이며 행복으로 여겼다. 많이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의 것을 빼앗는 길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량생산과 소비의 신화는 생태계의 파괴

를 가져왔고,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불화와 전쟁을 가져왔다. 그래서 환경문제의 해결은 인류와 모든 생명의 삶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하는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 방안은 종교환경회의가 발족하면서 밝힌 참회문에 나와 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자연이 나의 가장 소중한 벗임을 깨달아 대 개발, 골프장 건설, 에너지의 과다 소비 등으로 인해 죽어갈지도 모를 수많은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환경의 파괴가 곧 삶의 근거를 파괴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삶의 전환을 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인이 먼저 나서야 한다. 삶의 전환은 곧 만물에 불성이 있다는 가르침의 체현이며 영성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종교환경회의의 발족을 계기로 불자들 스스로 삶의 전환을 이루는 정진의 서원을 새롭게 다지길 바란다. 아울러 사찰과 교회의 대화화, 고급화에 대한 반성도 뒤따라야 할 줄 안다.

해외사찰 불교세계화 창구

조계종 사회부가 지난 주 ‘해외사찰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25개 사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나, 응답한 사찰이 38개에 불과해 설문문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해외 사찰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던 처지에서 보면 행편을 짐작해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해외 사찰은 매주 1~3회 법회를 봉행하며, 지역 포교를 위해 참선 교육과 경전 교육을 하고 있다. 지역 사회 참여도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번 결과에서 그래도 우리를 고무시키는 것은 포교의 대상이 교포에서 현지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포교 나아가 한국불교의 세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한다. 한국불교의 세계화의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 반갑다. 불교의 세계화는 현재의 불교정도를 구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25개 사찰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설문에 응한 사찰은 38

개에 불과했다. 아직도 종단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拭을 수 없다. 그 동안 종단사태의 여파는 해외 사찰에도 미쳐 포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38개 사찰을 제외한 많은 사찰들은 설문에 응할 여유조차 없이 어렵게 사찰을 꾸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는 종단은 물론 고국의 불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차제에 해외사찰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종단 차원에서는 해외 사찰을 대상으로 포교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속 교구본사의 관심도 뒤따라야 한다. 해외포교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 해외에 나가 있는 스님들도 종단과 소속 본사에 대한 귀속감을 높여야 한다.

왜, 미국과 유럽에서 불교 하면 티베트와 일본의 불교를 얘기하는지 물어야 하고, 그 답을 이제는 내놓아야 할 때이다.

해외 포교 ‘현지인 중심’

참선·경전위주 週 1~3회 법회...지역활동은 저조

조계종 38곳 설문조사

조계종 사회부가 23일 발표한 해외사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한국사찰은 참선과 경전 교육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찰 현황조사는 지난 2월 16일~4월 30일 사이 125개 해외 사찰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38개 사찰이 설문에 응했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사찰이 매주 1~3회 법회를 봉행하며, 지

역 포교를 위해 참선 교육(36%)과 경전 교육(32%)을 하고 있다. 지역 사회 참여도는 적극적이라는 응답이 33%, 보통 또는 여러 이유로 소극적이라는 응답이 67%로 나와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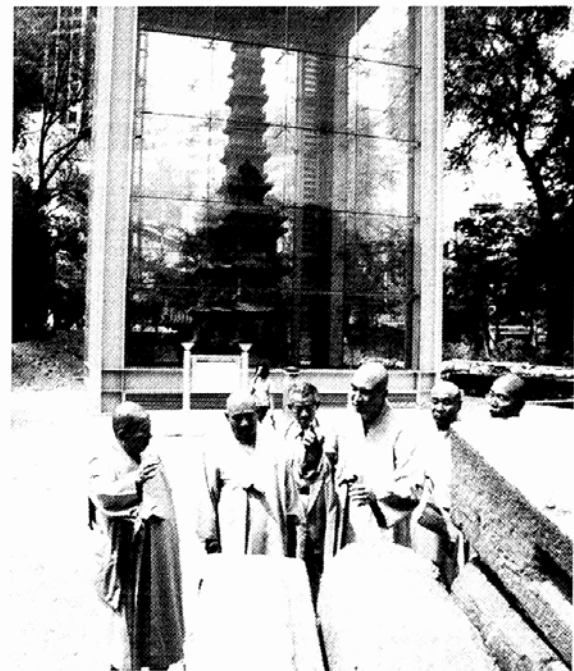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포교 대상이 교포 중심에서 현지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전히 교포를 주요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40%), 현지인과 교포(37%) 또는 현지인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20%)이라

고 답변했다. 청소년, 고아, 양로원 등 특정한 계층을 포교 대상으로 삼는 사찰도(3%) 있다.

해외 사찰의 조계종단에 대한 요청 사항은 재정 지원(40%), 종단과의 원활한 교류(21%), 스님 또는 법사 파견(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 응한 사찰은 7곳을 제외한 32개 사찰이 단독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지스님은 대부분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운 기자 swung@buddhapia.com



탑골공원 현장 조사.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스님과 사무국장 법현스님 등이 21일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한편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은 23일 서울시에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에 관한 조계종 입장’ 제하의 공문을 보내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에 대한 종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원각사단의 영구적인 보존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3급 승가고시 10월 시행

고시위원장 법산스님...승랍 10년이상 대상

조계종 고시위원회는 24일 오후 교육원 회의실에서 제5차 고시위원회를 열고 10월말경 승랍 10년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3급 승가고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시위원회 위원들은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을 무비스님에 이은 제2대 고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관련인터뷰 4면)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시행방법에 따르면 91년 1월1일 이후부터 94년 12월31일 까지의 사미(나)계 수지자를 1차 대상으로 분류하고 올해부터 2004년까지 매년 승랍 10년 이상된 스님을 대상으로 소집교육 방식의 고시 산림을 시행하고, 95년 1월1일 이후 사

미(나)계 수지자는 2차 대상으로 분류, 2008년부터 시험방식의 승가고시를 시행한다.

한명우 기자

사찰 우수처리시설 조사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성태)는 2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립공원내 우수처리시설 의무대상 13개 사찰에 대한 현장조사를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환경위원회는 국립공원 내 242명 미만의 254개 사찰중 203개 미설치 사찰에 대해 2002년부터 국고예산반영 지원 등의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중이다.

김원우 기자

‘불교와 통일’ 토론회

민족공동체본부 내달8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총재 정대, 본부장 정념, 집행위원장 명진)는 오는 8월 1주년을 맞아 6월 8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통일토론회를 연다.

‘불교의 평화 정신과 남북 대화’를 주제로, 이번 토론회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책기획위원장 학남스님의 기조발제(불교사상에서 전환의 논리와 민족통일운동)와 ‘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박영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평화와 불교의 역할’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장을 주제로 한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는 권혁범 대전대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 등이 다.

정성운 기자

태고종 제도개혁위 출범

첫 상임위 열어...법령·의제 정비 논의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21일 종단제도개혁위원회 첫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종헌중립 개정 등 종단의 총체적 개혁에 본격 나섰다.

태고종 제도개혁위원회가 서울 종무처 회의실에서 위원장 법상스님과 상임추진위원장 자월스님 등 모두 10명의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상임위 회의에서 △종단의 정체성 현황 △비현실적 무인종 3명씩 추천을 받아 참여 시키기로 했다.

제도개혁위는 향후 위원 선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고 일주일에 2회씩 상임위원회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경숙 기자

6개월 12시간 신도교육

10월부터 전국사찰 확대

신도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 ‘신도기본교육 시행령’이 제정 공포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21일 총무회의를 열고 조계종 포교계종 기획실과 조계사는 세미나 일정을 변경한 이유를 조계사 대응 전략식 60주년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불자들은 △불교의 이해 △부처님 생애 △불교기분교리 △불자의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한 기본교육을 6개월 동안 12시간 이상 받아야만 수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총무원은 ‘신도기본교육 시행령’에 따라 신도기본교육교재인 <불교인문>을 전국 분발사에 배포하기 시작했으며, 9월까지 전국 50개 사찰에서 신도기본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10월부터 전국 사찰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새만금 간척사업 중지 촉구 결의문

새만금 갯벌을 생동하는 생명의 장으로 놔두어라!

새만금 제2의 사회호로 만들 작정인가? 새만금 갯벌이 정부당국의 무리한 간척사업 강행으로 인해 죽음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갯벌은 물을 만들고 정화하며, 수많은 생명이 생동하는 살아 숨쉬는 땅이다. 특히,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섯 갯벌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동아시아를 횡단하는 철새들의 기착지이자,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자연의 건강함을 상징하는 수많은 해양생물의 보고이다. 이러한 새만금 갯벌을 간척사업으로 막아 놓지 못 만드는 것은 서해 연안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사회호의 경우처럼 인간계의 생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새만금 갯벌을 막아 얻어지는 농지는 2만 8천3백ha이지만, 각종 개발과 건축으로 사라지는 농지는 1년에 3만ha이다. 새만금 갯벌은 1만년 이상의 세월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새만금, 사회호 등 전국 20여개 간척사업을 위해 사라진 산이 전국적으로 15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미 새만금 간척사업에 의한 담수화 수질개선은 어렵다고 판명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계속 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회적 비용은 최저 2조 7천억원

에서 최대 4조 9천억원에 이른다는 생태계연구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하려는 총리실과 전라북도, 정치권의 모습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개발이라는 확연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우리는 환경, 종교, 사회단체들의 거듭되는 반생태성과 단식, 항의 성명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행진을 강행하려는 정부당국의 전면적인 정책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며 자연과 인간은 한 몸, 한 생명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간척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시행하라.
- 개발위주 국가정책에서 보전과 생명살림의 국가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

- 불기 2545년 3월

본사주지연합회 결의사항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관하여 자연환경과 국익을 위하여 신중히 연구·검토하여 심사숙고하라!

- 불기 2545년 5월 15일

본사주지연합회 참석자 일동

수덕사 주지 김법장, 봉선사 주지 황일면, 백양사 주지 석다정, 송광사 주지 현봉, 마곡사 주지 진희, 화엄사 주지 종걸, 쌍계사 주지 통광, 은해사 주지 법의, 신흥사 부주지 석마근, 대둔사 주지 보선, 법주사 주지 지명, 선운사 주지 법현, 통도사 주지 신희, 동화사 주지 성덕, 월정사 총무국장 원행

새만금 간척사업 중지를 촉구하는 조계종 총무원 입장과 중앙종회의 결의와 본사주지 스님들의 결의를 전폭 지지합니다.

- 불기 2545년 5월 16일

해인사 승가대학 · 송광사 승가대학 · 운문사 승가대학
동학사 승가대학 · 봉녕사 승가대학 · 청암사 승가대학
지리산살리기 범불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일동